

# 하늘의 씨앗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역 소식지 / Wycliffe Canada Korean Ministries Newsletter



## 특집: UPSTREAM 성경번역 홍보 연주회

잘스 (JAARS) VISION TRIP

지역교회를 위한 선교정보:  
김남수 선교사의 성경번역 이야기

다양한 동역의 기회/기도제목

선교사 전훈련의 중요성

1 2 / Fall 2008

Published by/발행처  
Korean Ministries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  
4-14 Steinway Blvd.,  
Etobicoke, ON M9W 6M6  
Phone: 416.996-0345 (강창석 선교사)  
Eastern Regional Office  
Toll Free: 866.702-5273  
Fax: 416.675-7504  
Kroffice\_Canada@Wycliffe.ca  
www.wycliffe.ca

발행인/Publisher:  
KM Director/한인사무국디렉터  
ChangSeok Kang/강창석선교사

편집인/번역/교정:  
Editors/Translators/Checkers  
Daniel Yoon/윤기태선교사  
Gyoojun Lee/이규준선교사  
Joseph Park/박요섭목사

디자인/Design:  
Carmen Lee/이효린  
Eddie Lee/이홍석

인쇄인/Printed by:  
Sun Printing House Limited  
Toronto, Ontario, Canada  
www.sun-printing.com

Wycliffe Canada's Vision Statement  
위클리프 캐나다 비전 선언문  
A world  
where translated Scriptures  
lead to transformed lives  
among people of all languages.  
모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모든 언어 종족의 삶이  
번혁되게 하는 사역

표지 설명:

표지그림은 지난 2007년 말까지 진행된  
성경번역에 관한 통계입니다.  
이제 아무 글도 없는 빈 성경만 있는  
2200개의 언어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토론토의 업스트림 찬양팀과 저희 한인사무국이 동역하여 처음으로 캐나다동부지역에 있는 네 도시 여섯 교회에서 성경번역홍보 찬양집회를 가졌습니다. 젊은 이들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많은 악기와 장비, 홍보자료를 3개의 미니밴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이 정렬해 싣고 연주회 때마다 설치하고 연주 후 다시 신기를 반복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리더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 예정된 공연을 완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음악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친 다해도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이 없이는 해낼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한인디아스포라들의 역적같은 순회 공연 헌신을 보며 젊은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맨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가 대동강변에서 나이도 27세로 순교한 지 올해로 142년째입니다. 온타리오 미시사키에는 그를 기념하여 조직되고 특수한 선교 사역하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선교사로서, 지금부터 113년 전에 노비스코사에서 황해도 송천(소래)으로 가, 1년 반 가량 선교하다 열병으로 돌아가 신 윌리엄 존 매켄지를 기억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사역 이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우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많

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시무했고 그 담임을 파송한 교회가 저희가 사는 데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가 조선땅을 밟았을 당시 그의 나이도 27세의 나이로 청년이었지요. 비록 젊은 한두 사람의 젊은 사역 이야기이지만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향했고, 4~5대에 걸쳐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와 전세계에 퍼져있는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는 지금 교회 중심 선교에서 선교중심 교회로 탈바꿈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회들이 몸부림치며 선교지향 교회로 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과 동시에 청년사역자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적인 헌신을 통해 인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놓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 났음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중 문화를 경험한 1.5/2세대들은 참으로 주옥 같은 선교 재원들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저희 한인 사무국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청년들을 세계선교를 위해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노라고 다짐해 봅니다. 바로 업스트림과 같은 디아스포라 젊은이들이 불길처럼 일어나 이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봅니다!

# 성경번역선교 홍보 순회연주회 UPSTREAM & Wycliffe



위클리프 캐나다와 upstream이 지난 7월 말에 캐나다 동부지역을 순회하며 여러 한인교회와 캐나다인 교회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순회 연주회는 upstream 팀이 지난 3년 간 준비하여 펴낸 찬양집 CD “upstream”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 발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싶었어요.” 리더 김동진 집사의 말이다. 10일동안 2회의 세미나와 6회의 콘서트를 하는 강행군이였다.

힘들게 얻은 휴가를 통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의지에서였다. 위클리프 역시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되게 하는 찬양집회를 통해, 성경번역 선교의 필요와 중요성을 알리고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연주회를 함께 기획하고 섬겼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이번 연주회를 열어주신, 몬트리올사랑장로교회, 프

레드릭턴 한인교회/First Wesleyan Church, 몽턴한인교회/Moncton Wesleyan Church/세인트 존 한인교회, Birch Cove Baptist Church, 노바스코샤 한인장로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7/19-21 | 몬트리얼 사랑장로교회



몬트리얼 사랑장로교회 / 김성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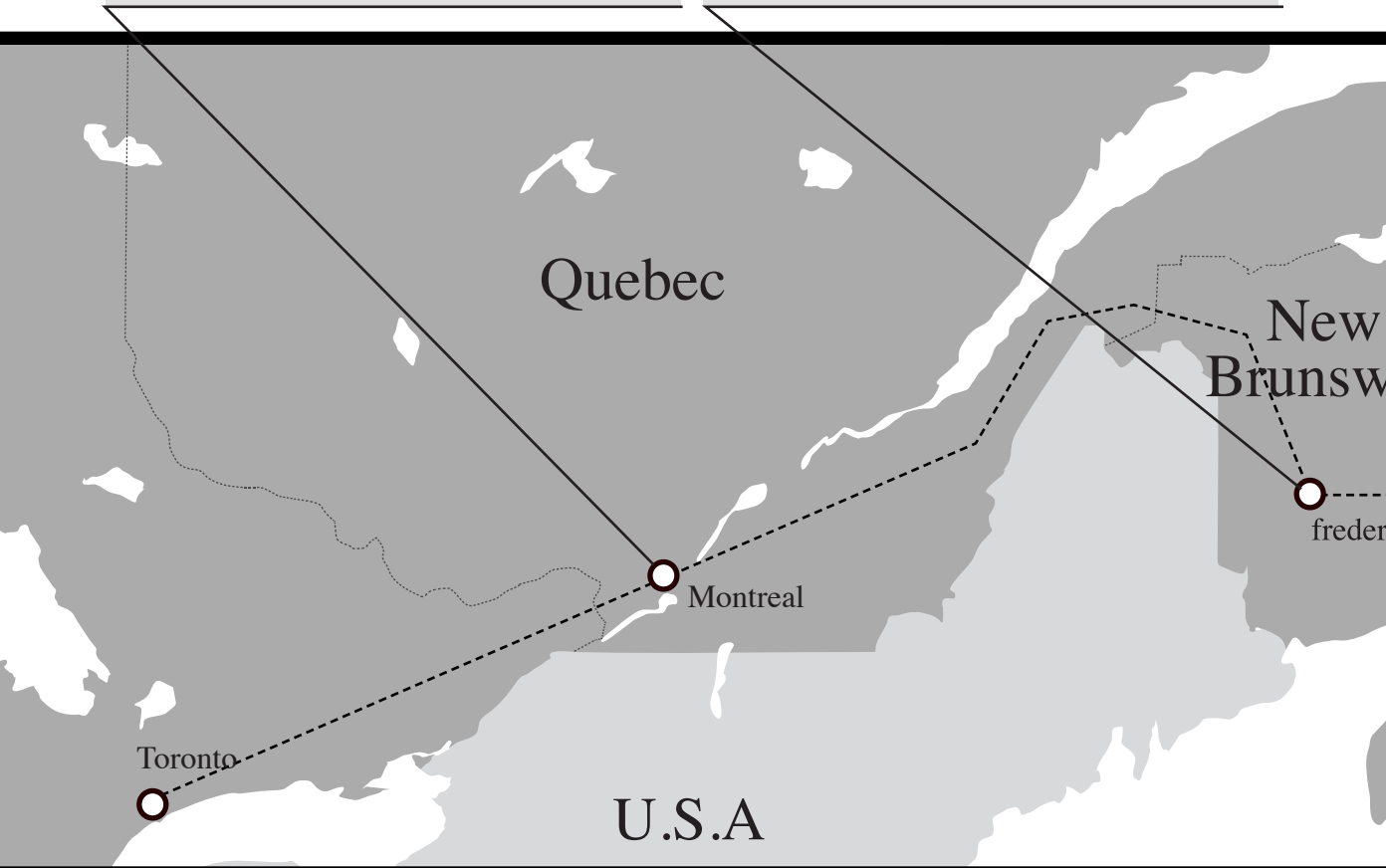
찬양에 헌신한 것도 귀한 일인데, 선교를 위해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성경번역선교에 대해 예전에 전해 듣고 마음만 있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를 향해 일깨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7/23 | 프레드릭트한인장로교회



프레드릭트한인교회 / 유수한 목사,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헌신의 열정과 음악적인 기량이 피부에 와닿는 연주였고, Wycliffe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골에서 휴가철이라 인원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오신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 7/27 | 몽턴 한인장로교회



몽턴한인교회/ 김성동 목사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했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클리프성경번역사 역에도 동참할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 7/27 | 노바스코샤 한인장로교회



노바스코샤 한인장로교회/ 이석호 목사

이석호 목사님 글은 다음페이지에서 읽으실수 있습니다...



# UPSTREAM

## 찬양팀과

# Wycliffe

## 성경번역선교회와의 만남

노비스코사 한인장로교회

이석호 목사



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열정과 성실로 준비한 upstream의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또한 Wycliffe 성경번역선교회와의 만남은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임재의 뜻은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제국 각 곳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최소 열 두 나라 이상의 언어로 들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직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삼천 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조선에 들어감으로 가난, 무지, 좌절, 게으름, 조상숭배에 젖어있던 우리나라가 부유, 성공, 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축복받은 엄청난 사건을 일어났음을 들으며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민족에게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한국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Wycliffe의 귀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위대한 변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만남 속에 행복이 있다.”는 말과 같이 올 여름 진솔한 upstream 찬양팀원들과 Wycliffe와의 만남은 저와 교회에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이 만남이 더욱 깊고 행복하고 창조적인 만남으로 확장되기를 염원합니다.

**독**일의 의사이며 작가였던 한스 키로시는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산다는 것은 만남으로 70-80년 인생의 긴 여로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 대부분의 만남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열은 만남입니다. 그러나 올 여름 upstream 찬양팀과 Wycliffe 성경번역선교회와의 만남은 뜻깊고, 창조적이며,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이중언어로 한국과 서양문화의 이중문화를 이해하는 가운데 드러지는 찬양은 참으로 의미가 깊었습니다.

보컬, 기타, 신서, 드럼 등 저마다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소리들이 모여 현대와 전통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함에 생명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 바쁜 직

# 찬양과 진리 가운데 하나로...

몬트리얼사랑장로교회  
이지현 자매

찬양집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서성대고 있는데 책들을 한쪽에 쌓아놓은 전시 부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부스가 Wycliffe 성경번역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평소에 관심이 가던 내용을 담은 책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 반가운 마음에 책을 둘러보고 거의 대부분의 책들을 구입하게 되었지요. 사실 책도 좋았지만 책을 전시하고 있는 한진숙 선교사님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자석에 끌리듯이 책을 기웃거리다가 있는 책을 몽땅 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전 마닐라에 살때도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우연히 만나 “저 분들은 왜 저렇게 착해보이실까?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 한 것으로 시작해서 몇 달 만에 기적처럼 불교신자에서 크리스천이 되었기에, 영혼 깊이 그윽하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눈을 떼지 못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감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또한 이렇게 모든 오감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기에 저는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을 눈으로 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동물과 달리 단지 소리가 아닌 문자와 말을 인간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은밀한 삶의 비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도구를 세심히 챙겨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Wycliffe의 사역에 관한 이규준 선교사님의 선교보고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세워져 산산조각이 났던 바벨탑의 잔재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발견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 쪼개어지고 나누어진 각기 다른 언어들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인간들의 다양한 삶과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각기 다른 언어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투영시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수 많은 민족들과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리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멜로디를 통해 서로 다른 민족이 하나된 마음을 열 수 있듯이 Wycliffe 사역을 통해 서로 다른 언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되는 날을 소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Getting United in Worship and the Truth

Montreal Sarang  
Presbyterian Church  
Ji Hyun Lee

While I was waiting for the worship to begin, I noticed a booth displaying many books and a lady, with an inspiring look, at the booth (I could not recognize at that time if she was the wife of Pastor Lee Gyoosun). Attracted by her Jesus-like aura, I took a quick look of many books with interesting themes and bought all of them. She reminded me of the missionary couple, whom I met in Manila 2 years ago. That brief encounter with the missionary couple triggered me a question, “why do they look so NICE and GOOD?”. Since then, I became a Christian, accepting Jesus as my savior, in the following two months, which was truly a miracle as our family has a long tradition of Buddhism. That’s why I cannot take off my eyes if I see a presence of God in some people.

There must be a reason why God gave us five senses. Perhaps, He wanted us to feel his presence through all of our senses. For example, we feel His presence when we look at those inspiring people or magnificent beauty of natures. We also feel His presence by listening to beautiful music, particularly praise songs. Moreover, God gave us languages, which was never given to animals. I guess he wanted to equip human beings with an effective tool to communicate with God as well as understand and spread God’s words, the most important secret of our life.

In this regard, the Wycliffe mission report by Pastor Lee struck me with new insights on the works of God. I could envision, from the Wycliffe report, that the pieces of Babel Tower, which represented the arrogance of human being and shattered by God all over the world into dust, are now being recollected to be transformed into the bricks to build God’s nation. Those languages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reflect different lives and histories of various people groups, who have drifted away from God due to their sins. Re-creating these languages as the conveyors of God’s words would become a first step toward bringing those lost souls to God.

As we became one in our praise singing, opening our hearts to God, I thank God for giving us this hope that all the different languages will become one through His Words.

# JAARS VISION TRIP



지난 5월 토론토영락교회 선교부와 위클리프 한인사무국 주최로 질스 비전 여행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지역 5가정, 한인사무국 선교사 3가정, 총 14명이 3박 4일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Waxhaw, South Carolina에 위치한 질스 (JAARS: 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 센터는 SIL (하계언어연구원)과 함께 국제위클리프

리프의 자매기관이며 성경번역을 지원하는 종합기술지원센터입니다. 항공 (Mission Aviation), 컴퓨터/정보통신 (IT), 미디어 (VMS: Vernacular Media Services)와 보급운송 (Logistics-Transportation), 건축및 유지보수 (CAM: Construction And Maintenances) 사역과 기타 지원 사역으로 전 세계 90여 개 국 6,000여명

의 위클리프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전여행에 동참하였던 참가자들이 영락교회에서 모여 여행보고와 평가회를 가지며 나눈 소감과 간증을 소개합니다.





### ■ 이 혁 집사

**앞**으로 이루어질 선교사역의 비전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수있는 귀한 여행이었기에 15 시간의 긴 자동차 여행임에도 힘든 줄 몰랐고, 기도와 찬양과 교제로 동행한 분들과 귀한 시간을 가질수 있었다.

첫 날 아침 숙소 앞에서 귀한 장면을 볼수 있었다. 80 세를 훌쩍 넘어보이는 노인 두분이 골프 카트를 타고 잔디밭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관찰하며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었다. 궁금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여쭈어 보았다. 그들은 불개미 굴을 찾아 약 품가루를 뿌리고 불개미의 번식을 막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

한분의 선교사를 훈련 시키고 파송하여 관리하며 가장 효율적인 선교를 할수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선교현지의 선교사들의 사역이 결실을 맺기 위해 수백 수천의 지원 및 협력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도 알게 되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2,500개가 넘는 부족의 언어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번역되지 못했다고 한다. 성경번역을 통해 말씀을 그들의 말로 전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한 잘스의 사역과 같은 작은 선교의 섬김이 모아지고 모여져서 큰 회심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는다.

### ■ 이호례 집사

**두**어 달 전부터 바깥에서 만나본 강창석, 이규준 선교사님으로부터 잘스센터 방문을 권유 받으며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채, 비전여행을 위한 휴가를 얻고 때마침 우리 영락 교회에서도 계획이 있음을 알고 참가하게 되었다.

1917 년 과테말라에 성경 판매자로 나선 카메론 타운센드에게 그 부족중 한 사람이 "하나님이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말로 된 성경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충격을 받은 후 고민하며 워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를 창시하게 되었으며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브라질 등의 오지에 신속 안전하게 선교사역을 할수록 항공지원을 사용할 수는 없을가 하는 비전을 갖기 시작하게 이곳 잘스의 탄생이요 오늘의 이곳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약 600명의 잘스센터의 선교사와 세계 80여개국에 6,000여 성경번역선교사들이 파견되어 있다고 한다. 2025년까지 남은 2,500여 미전도 종족의 모국어로 번역 하는 사역에 착수할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성경 1권의 번역을 위해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현지에서 그들과 같이 문화와 언어를 습득 해야만 한다니 실로 엄청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첫째는 청소년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가슴을 넓히는 일이 필요함을 느꼈고, 둘째는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자연스러운 부담을 얻었고, 셋째는 할수만 있다면 좀더 선교에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어야 겠다는 몇가지가 부담없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다.

## ■이계남 권사

은퇴한 후 여러 모양으로 잘스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다. 사람들이 알아 주지 않아도 뒤에서 숨은 봉사에 열심히 주를 위하여,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누구나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보았고 우리도 언젠가 은퇴한 후 단기든지 장기든지 선교에 헌신하여 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왼쪽부터 뒷줄 ( 장영민/ 장영훈/ 이혁/ 이규준/ 유재선/ 박용순 ) 앞줄

## ■박용순 집사

작년 위클리프 캐나다 사무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규준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어 매주 위클리프에 대한 목적과 사명 및 현황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며 사무국 국장이신 강창석 선교사님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위클리프의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이것이 나에게 잘스를 방문하게 만든 하나의 계기였다.

내가 본 잘스센터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였다. 성경번역이 단지 현지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지역민들과 살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소화해 낸 다음 번역을 하는 그런 단순한 시스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위클리프 선교단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망설였었다. 그러나 잘스센터에서, 다양한 전문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 하였거나 혹은 중간에 쉬는 기간을 통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은퇴하면 저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고 기쁜 마음을 가졌다.

잘스를 통해 느낀점들은 다음과 같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는 단순한 번역 사업만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다, 잘스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봉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지식 등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분의 뜻에 맞게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단체이다. 교회가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또 선교단체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장기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혜옥 집사

긴 여행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스선교센터에 도착하는 순간 이곳은 지금까지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갔었다면, 이곳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 선교중심, 나 이외의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세상이었다. 자신을 위한 부의 축적도, 욕심도, 사업도 없는 오로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그 과정을 돕는, 빛도 이름도 없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지원 선교사님들 뿐이었다. 아! 이것이 또다른 선교의 모습이라는 생각과 함께 나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작은 일이라도 선교에 헌신하는 지원 선교사가 되리라고 주님께 기도 드렸다. 뽀뽀할 일정 중에서도 더욱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는 일행들을 볼 때 감사함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 우리를 위하여 긴시간 가이드 하시며 설명하여 주신 연세 많으신 선교사님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없이 행복 하시고 자랑 스텝다는 80이 넘으신 할머니 선교사님...

전 세계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2,500 여개의 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한다. 또 다른 선교의 비전을 보여 주심에 감사한다. 가장 작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선교를 위하여 쓰여지길 원한다.



(순) 앞줄 ( 윤기태/ 양희숙/ 이계남/ 박정숙/ 장사라/ 김혜옥/ 이효례 )

## ■ 장영훈 집사

6,000개나 되는 전세계 언어들을 위해, 그들의 말로 빠짐없이 성경번역을 하겠다니, 아무리 작은 종족이라도 하나도 빠짐 없이 주의 말씀을 번역하겠다는 비전이 참 귀했다. 이러한 꿈이 다 이루어 지려면 큰 희생과 노력, 지원이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나 자신도 그 일을 위해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 ■ 유재선 집사

**잘** 선교여행은 선교 헌신에 관심이 있으나 함께 할 방법을 모르거나 다른 거창한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부담을 느끼는 극히 평범한 우리들을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질, 경력 등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선교에 동참할수 있는 사역을 직접 확인 해 보고, 그 가능성을 기쁘게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성경번역이 성경번역 선교사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적어도 5배 이상의 많은 동역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잘스는 이런 필요성을 일찍 간파한 윌리엄 카메룬 타운젠트에 의해 설립되어 이 선교과업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동역체제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고자 구축된 단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날 밤, 일상용품들을 아끼고 절약하여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물질로 도우시는 한분의 간증과 이번 선교여행이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행사에 먼저 참가를 제안한 사건(?)이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교의 비전을 알게 되었다며 눈물로 고백하던 여자 집사님의 간증은 이번 선교여행의 백미로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성령 체험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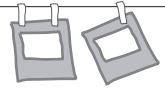
왕복 32시간씩의 오가는 여정, 위클리프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속도로변 휴식소에서 더운물을 끓여 컵라면에 김치와 찬밥을 먹으며 나누었던 사랑과 섬김의 순간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 땅에서 보상 받을 수 없는 선교 헌신의 시작이었다.

## ■ 박정숙 집사

**어**느 주일아침 이주버님이 종이 몇 장을 나에게 건네 주며,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를 지원하는 잘스선교센터에 함께 가자고 권하였다. 잘스에 가보니 저들이 하는 일들과 계획들이 어마 어마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 주의 큰일을 이루고, 선교역사를 만들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리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함께 동행한 분들과 그곳 선교사님들의 귀한 만남, 오가며 차안에서의 재미 있었던 일들... 그곳에서 시간마다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며 토론 시간을 통해 더욱 선교에 대한 인식과 선교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뜻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더욱 감사한 건 처음으로 먼저 남편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자고 했다는 점이다. 그의 뜻에 너무 기쁘고 감동...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순간이었다.

다녀온 후 남편의 말과 생각이 선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앞으로 컴퓨터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그의 생각에 너무나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남편을 쓰시고자 하실때 잘 감당할수 있도록 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하는 아내가 되길 또한 기도 한다.

# 사진 으로 보는 지난 행사



아릴락 소장 정제순선교사 한인사무국 지원사역

원편사진: 성산교회, 오른쪽 사진: 나이가라한인장로교회



갈릴리교회의 미션퍼스펙티브

왼편 사진: 참가자들, 오른쪽 사진: 개회예배



표사라 자매 캘거리 본부 인턴십

원편 사진: 록키에서, 오른쪽 사진: 새로 만난 자매들과 함께



# 다양한 동역 의 기회

## 위클리프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

많은 분들이 성경번역선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위클리프에는 오직 성경번역 하는 사람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번역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 350 개가 넘는 많은 일들이 동시에 협력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경력, 기술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 다양한 동역의 기회 1 : 기도 사역 (2) BPPP

### Bibleless People Group Prayer Project

여러분의 기도로 아직도 성경이 없는 부족들이 있는 곳에 선교사가 파송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또 안내해드립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없는 부족을 위한 기도 프로젝트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성경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은 부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 현재, 아직도 2200여 개가 넘는 언어종족에 아직도 성경번역 작업에 헌신할 선교사가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비전은 2025년까지 모든 필요한 언어에 성경번역 작업이 착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성경이 없어서 영적으로 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기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원하던 사역지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배치받게 되어 마지못해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BPPP 기도팀으로부터 감사 엽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부족을 품고 선교사가 보내지기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의 결과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한 종족 한 종족을 품어주십시오!

- \* 기도편지를 받아서 기도해주세요.
- \* 위클리프 웹사이트에서 기도편지를 다운받아주세요.  
<http://www.wycliffe.ca/korean/pdf/pray-bulletin.pdf>
- \* 교회 웹사이트에 기도버튼 링크를 달아주세요.
- \* 여러분의 각종모임에서 위클리프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주세요.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이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한인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십시오.**

# 선교 정보

## 김남수 선교사의 성경번역 이야기

이 글은 워클리프캐나다의 영자판 계간지 *Word Alive* 2008년 봄호에 실린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한국성경번역선교회 (GBT) 소속의 김남수/이덕신 선교사 부부의 시역내용을 소개한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한글성경과 빌리 그

래함의 복음 진도가 선교현지의 기초가 되었음과, 서구인과 비서구인과 현지인들이 선교현지에서 동역하는 모습, 동시에 잘스 (JAARS)의 IT 기술 지원이 빚어내는 놀라운 협력의 효과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원문은 워클리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For English version, please go to the following web page and click the article titled "Fuelled by the Past". <http://www.wycliffe.ca/wordalive/archive/2008spring/index.html>



**함**께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식탁 바로 위 천정에서 도마뱀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파충류의 꼬리가 떨어져 국수 그릇에 빠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눈을 떴을 때, 모두들 그들이 오랜만에 맛보려던 특식 한가운데 그 분리된 꼬리가 빠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던져버렸다면 딸들은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라고 이덕신 선교사는 회상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도마뱀 꼬리를 꺼내고 그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국에서 5000km 이상 떨어진 Papua New Guinea (PNG)의 덥고 건조한 남부해안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성경번역으로 섬기는 이 가정에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는 언어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려는 김선교사 내외의 깊은 헌신에 기름을 부었던 과거가 이러한 불편한 환경에서의 적응을 도왔던 것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지배하던 때, 일본당국은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를 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19세기 후반에 번역된 한글성경은 이 혹독한 박해가운데서도 교회와 저들의 언어, 정신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세대로 성장한 김선교사 내외는 한글 성경이 한국교회와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배우게 되

었고, 말할 것도 없이 성경말씀은 두 사람의 삶에도 획기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선교사는 자주 성경을 읽었고, 그녀가 읽었던 성경에 근거해 결국에는 예수믿기로 결심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선교사가 결신하게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970년대 초,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집하였던 빌리 그래함 목사의 부흥전도집회에 서로 모르는 채로 각각 이 집회에 참석했던 김남수, 이덕신 두 젊은이는 그들의 삶을 선교사역에 헌신했으며, 결국 만나 결혼했고 해외선교사로서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청년 모임에서 두 사람은 PNG에서의 성경번역에 관한 비디오를 보았고 PNG에 있는 수백의 언어들 가운데 아직도 수백개의 종족언어 성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신 선교사는 회고하기를, “저는 모든 사람이 성경책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덕신과 김남수 젊은이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성경책이 없을 수 있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한인 교인인 이들에게는 성경책이 더할 나위없이 중요하였고, 결국 “의심할 여지없이” 두 사람은 성경번역 시역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Australia



김선교사 내외는 몇 안되는 최초의 국제위클리프선교회의 한국기관인 성경번역선교회 (Global Bible Translators, GBT)의 창립멤버가 되어 성경번역 지역에 동역하게 되었고, 오늘날 GBT는 약 170여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선교사 가족은 1987년 PNG에 도착한 뒤 수도인 포트몰스비 (Port Moresby) 부근의 와이마 (Waima) 부족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들이 초창기에 겪었던 문제들은 그들의 음식 속에서 도마뱀 꼬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들이 처음 에레에레 (Ere'ere)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백인들은 죽은 자로부터 돌아 온 조상의 영혼이라는 미신이 있었는데, 처음 김선교사 가족이 그 마을에 당도한 순간 현지인 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네와 같은 완전한 갈색도 아닌 이 김선교사 가족은 시간이 감에 따라 와이마 부족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의 가족과 같은 입양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에는 와이마식 이름도 얻게 되었습니다.

김선교사 가족은 수년 동안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구약의 일부와 2003년에 완역된 신약 전체를 봉헌하였습니다. 또한 김선교사 가족은 와이마 부족이 3개의 태양열 발전판과 한 개의 작은 풍차로 만든 자체 방

송국을 세우는데 조력하였고, 이 방송국을 통하여 약 2만명의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부족 말로 된 기독교 음악과 와이마어로 된 쪽 복음을 읽어주는 귀한 사역도 이루었습니다.

김선교사 내외는 이제 본국으로의 귀환을 고려할 만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와이마 교회가 성경번역과 관련된 사역을 계속할 능력과 열정을 갖고 있고, 이제 이들의 딸들은 이미 다 자라 떠났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그들을 PNG에 보냈던 것과 같은, 사람들과 성경말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김선교사 내외는 PNG에 계속 남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한 언어가 아닌 와이마 언어에 연관된 나라 (Nara), 가바디 (Gabadi), 도우라 (Doura) 3개의 부족언어의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커뮤니티들은 수도에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기에 번역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받고 영향력 있는 지역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나라어 사용자인 피터 바키 (Peter Baki)입니다. 진중하고 유칼럼투스로 덮인 언덕에서 소년으로 자라난 피터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 교사로 시작해서 수년간 교사로 가르친 후 교장이 되었고, 그 다음엔 장학관, 그리고 1997년에 그는 마침내 PNG의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8년간의 교육부 장관 임기 중에 피터는 존 홉슨 (John Hobson)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존은 호주에서 온 위클리프



선교사로 피터와 우정을 쌓으면서 그에게 성경 한 권을 주었습니다. 서로 좀 더 알게 된 후에 존은 피터가 그 자신의 부족을 위한 성경 번역을 시작하도록 권해주었습니다. 이에 피터는 동의하면서, 지난 수년간 교육만으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어를 아시고 당신이 당신의 언어로 그분께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외국의 신이 아닙니다.”

존은 피터에게 어댑트 IT \*(Adapt IT)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연관된 언어들 간에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들이 한 언어의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을 돕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피터는 나라와 와이마 두 언어 모두에 능통했고, 그래서 그는 와이마어 신약성경을 2년이 못되어 나라어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Adapt IT)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초고들은 물론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일련의 정확도와 이해도 점검을 나라어 커뮤니티와 경험 있는 성경번역 컨설턴트들과 같이 일하게 됩니다. 2007년 중반 김선교사 내외는 나라어 사용자들과 함께 일부 감수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피터의 초고는 질적으로 매우 훌륭했고, 사람들도 좋아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나라어 번역자들은 감수와 개정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선교사 내외는 가바디어 사용자들과 함께 유사한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두 번째 초고작업 중입니다. 그들은 세 번째로 번역이 진행될 희망을 품고 도우라 커뮤니티 지도자들과도 가능한 한 빨리 만날 계획입니다. 나라와 가바디 커뮤니티에서 각각 두 명의 젊은이들이 STEP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부족을 위한 문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20년 전 김선교사 가족은 이 땅이 성경에 대한 엄청난 필요가 있음에 감동되어 (PNG)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필요가 여전히 크기에 김선교사 내외는 아직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Adapt IT: 질스의 IT 부서에서 개발해낸 것으로, 같은 어군 (language family)에 속하는 언어 중에 한 언어에 성경번역이 완료되었을 때, 나머지 언어에도 성경번역이 용이하게 돕는 프로그램. 약 500개의 주요 성경용어들(key words)을 각 언어마다 찾아낸 뒤에 이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주고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여러 언어로 초벌 번역이 나오게 해줌.



# 사전훈련의 중요성

# Pre-ministry Training

폴 후퍼

(위클리프 캐나다 본부/ 인사부 훈련담당 선임간사)

Paul Hooper

(National Coordinator of Training, Personnel  
Department of Wycliffe Canada)

과학 기술과 교육이 발전해 감에 따라 대부분의 것들이 이전보다 달성하기 더 쉬워졌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타문화권 복음 전도는 쉬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구촌” 시대인 오늘날,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한 문화적 환경에서 다른 문화적 환경으로 순식간에 “옮겨진다”는 것과, 그 문화 자체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문화 이해와 적응을 위해 주어지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족주의의 개념이 세계 곳곳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에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배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도 보호하려 하는 폭력적인 면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선교사로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민족주의의 남용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겨지는 지역들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다른 많은 예들 중에 단지 몇몇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전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먼저 선교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사전훈련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사전 훈련의 시간을 통해 선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고유 문화, 사역할 곳의 타문화, 그리고 적응의 방법들, 언어와 같은 다양한 필수적인 주제들에 대해 더 완전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본 훈련”은 또한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역이 효과적 이려면 의미 있는 기도 후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를 통해 이 전투에 가까이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며, 복음을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이들의 준비시역을 기도로 후원해 주시도록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선교사들이 치르게 되는 영적인 전투는 “선교 현장”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Many think, that because of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education, most things are becoming easier to accomplish. However, a challenging reality is that communicating the gospel through cross-cultural ministry in a global setting is becoming more difficult rather than becoming easier. Because of the fast-paced “global village” that our world has become, missionaries today find themselves “transported” from one cultural setting to another in very little time and find that the cultures themselves could be very different than what they have been traditionally. Therefore time for understanding and adjustment can be quite limited.

Along with this, the concept of nationalism is strongly developing in most areas of our world. While this is something we generally praise because of the accompanying for language and culture, this may also have a violent component, which protects against any perceived “outside” influence. The result being that there are very few parts of the world, which are considered “safe” (free from abuse) for people to serve as missionaries.

What I have mentioned above are just a couple of examples among many others. I firmly believe that, therefore, if we admit the importance of pre-training and it is to be effective, prayer for missions must include pre-ministry training. It is through this time of learning that the missionary develops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a variety of essential topics, such as his relationship with God, his own culture, the culture in which he will minister, methods of adjustment and the language in which he will minister.

This “basic training”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spiritual warfare and meaningful prayer support is essential if the ministry that follows is to be effective.

I, personally, would like to thank each one who willingly joins in the battle through prayer and would encourage you to prayerfully support the preparation ministry of the ones who take the gospel to those of another culture. Remember, the spiritual battle in which missionaries are involved definitely starts before anyone leaves for the “mission field”.

# 캐나다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 소개

## — 김영수 / 미자 (Jonathan and Bonnie Kim)선교사

캐나다한인 최초 성경번역선교사

캐스퍼해 연안 A국에서 성경번역 일부 마치고 나머지 사역은 현지 지도자에게 위임하고 귀국. 현재 선교사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중에 있음. 자녀는 어진, 하은, 조엘, 2남 1녀.

## — 알버트 / 마르다 (Albert and Martha)선교사

C국에서 컴퓨터 기술 사역을 마치고, 대만에서 결혼한 알버트 선교사와 지난 해부터 아프리카에서 성경번역 시작. 현재 언어습득 중. 자녀는 이사, 1남.

## — L 선교사

C국의 Y종족 언어습득해서 곧 신약번역 착수 준비 중. 지역본부의 행정 책임을 동시에 맡아 사역하고 있음.

## — 흥현민 / 귀주 (Joseph and Guiju)선교사

미국 본부 한인동원사역을 마치고 국제 본부 소속 ADI(Asian Diaspora Initiative)의 한인 담당 부책임자로 사역 중. 새로운 지역의 동원사역을 준비하고 있음. 자녀는 지수, 은수, 대학생 2명.

## — 강창석 / 사라 (David and Sarah)선교사

캐나다 한인사무국 디렉터. 캐나다 전역 한인디아스포라의 선교동원을 위해 동역자들을 격려하며, 지역교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권하고 선교회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 있음. 자녀들 모두 성장

## — 이규준 / 한진숙 (Gyoojun and Jinsook)선교사

동원사역. 캐나다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인교와 지역교회 동원을 위해, 교회를 돕는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 선교 훈련 등을 제공하며 섬기고 있음. 자녀는 광표, 준표 2남.

## — 윤기태 (Daniel and Helen)선교사

캐나다 본부 인사부 소속으로 후보선교사 허입수속과 관련 행정사역, 회원 사후관리, 소수민족 동원사역 간사. 동시에 한인사역 소식지 편집 책임등 한인동원 사역 지원. 1남 1녀, 자녀들 모두 성장

# 캐나다 한인 선교사 기도 제목

## 강창석/강사라 -한인사무국 Director

- 기획 중인 토론토 성경번역홍보 콘서트, 켈거리한인장로 교회 선교 대회, 파푸아 뉴기니 선교비전여행, 잘스 선교 예비훈련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준비되고 주님 뜻대로 실천되도록
- 동원사역자들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여 필요한 일꾼들을 찾아내고 헌신하기까지 잘 돕도록
- 선교 동원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서 많은 관심자들을 만날 수 있게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후속조치가 잘 이뤄져 헌신자들이 나오도록
- 청년 선교동원을 위한 동원가를 보내 주셔서 1.5/2세대들이 동원되도록

## 김영수/김미자(어진,하은,조엘)-아시아성경번역

- 9월과 10월에 있었던, 언어습득 자문가 워크샵/장년교육 세미나 등을 잘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참석자들이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특히 현지인 훈련에 잘 사용되도록
- 토론토에 있는 동안 교회봉사와 위클리프 본국사역의 일이 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 하나님의 주신 선교센터 비전이 차츰차츰 구체화 될수 있도록
- 역문화충격을 받고 있는 가족이 캐나다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 알버트/마르다(이삭)-아프리카,성경번역,컴퓨터

- 주의 영으로 사랑과 지혜 충만하도록
- 함께 일할 신실하고 성숙한 현지인 사역자들을 주시도록
- 저희 두사람 다 이곳 언어 습득에 진보가 있도록
-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특히 알버트의 위병 회복을 위해

## 윤기태/양희숙 -인사행정,동원

- 한국의 한 동역교회에서 차량헌금 보내주신 것 감사
- 동역교회/개인 들에게 더 자주 사역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 허입중인 한인가정들의 순조로운 수속이 진행되도록
- 한인사무국 지원사역(소식지 제작등)에도 열매가 있기를

## L선교사 -아시아성경번역, 지역 부디렉터

- 앞으로 여기 저기 방문하며 저희 단체와 좋은 관계를 갖을 수 있는 학교나 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학교, 기관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관계를 세워나가도록
- 사역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 홍현민/홍귀주(지수,은수)-ADI,한인디아스포라사역

- 지난 4년 8개월의 미국 본부 사역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국제본부 한인디아스포라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KPM 선교 연합(9월), 남가주 사랑의 교회(11월) 컨설팅이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 내년 1월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팀의 전략 회의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 배포되는 한인 디아스포라 DVD 를 통해 선교 헌신이 많이 일어 나길
-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지수와 은수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 박요섭/조선향 -동원,멤버 허입 절차 중

-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 밴쿠버 지역 선교 동원을 위해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잘 연합할 수 있도록
-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기도, 재정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을 주시도록

## 최재홍 -멤버 허입 절차 중

- 허입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 많은 기도와 재정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도록
- 사업장 renovation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마쳐지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 이규준/한진숙(광표,준표)-동원

- 더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동역케 해주심에 감사
- 멤버십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의 수속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 10월에 있는 파푸아뉴기니 비전여행을 통해 헌신자가 생기도록
- 동역해주시는 단체와 교회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 • TRANSLATING Scriptures • TRANSFORMING Lives

## Upcoming Events

### 단기 비전여행 (Papua New Guinea) (10/12~26)

우카롭과의 성경번역선교회 본부와 김남수/이덕신(GBT소속) 선교사의 사역지(와이마, 나라, 가바디, 도우리)를 방문하는 단기 선교비전여행이 진행됩니다.

### 성경번역홍보콘서트 (11/8)

업스트림과 함께 영락교회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번역의 필요를 알리는 콘서트를 엽니다.

### 캐거리하이자로교회 선교대회 (11/14~16)

다양한 활동과 토의 예배 등을 통해 총체적인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 헌신의 계기를 삼도록 위클리프와 교회가 함께 협력합니다.

### 재정후원안내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는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사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그리스도인 개인들과 교회로부터, 선교사와 재정 동역자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헌금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클리프는 비영리 기관으로 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모든 사역비와 활동을 위해 보내는 헌금들은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정 동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교사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재정후원 방법은 한인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캘거리본부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4316 10 St NE Calgary, AB T2E 6K3  
403.250-5411 / 1800.463-1143  
www.wycliffe.ca

한인사무국(Korean Ministries)  
동부사무실 416.675-6473  
#4, 14 Steinway Blvd. Tor. ON, M9W 6M6  
강창석 선교사/ 이규준 선교사  
416.996-0345/416.888-2262  
Kroffice\_Canada@Wycliffe.ca

서부사무실 Wycliffe BC Office  
604.881-1059  
7600 Glover Rd. Langley, BC V2Y 1Y1  
박요섭 선교사 778.889-9845  
Joseph-Joyce\_Park@Wycliffe.ca